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KBS사보

2021년 4월 5일 월요일
Vol. 717

‘미래의 공영방송, 새로운 KBS 시대’

조직개편 4월 5일 시행

KBS가 공영방송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앞서 양승동 사장은 지난달 공사창립 48주년 기념사를 통해 ”KBS가 앞으로도 수신료의 가치를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 미래의 공영방송, 새로운 KBS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조직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TV 중심의 선형 조직 → 디지털형 非선형 조직

TV와 디지털을 아우르는 멀티 플랫포밍(Multi-Platforming) 편성조직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도본부의 경우 디지털 직무를 모든 부서에 명기하고, 24시간 뉴스 스트리밍 채널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디지털콘텐츠 제작기능은 제작본부로 이관해 멀티 플랫폼, 크로스 오버 제작기능을 강화했다.

국·부장 등 보직 10% 이상 감축…유사·중복 업무 통폐합

콤팩트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본사 기준으로 10%대의 보직자 감축을 단행했다. 내부를 슬림화하고 내·외부 파트너십은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556개인 국·부·팀장급 보직을 491개(국장급은 52명에서 46명으로, 부장은 155명에서 137명으로, 팀장은 349명에서 308명으로)로 줄였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업무를 통폐합하는 등의 직무 재설계를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장급 재난미디어센터 신설…공영방송의 핵심 업무 강화

이번 조직개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공적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거점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한 것이다. 현 재난방송센터(부장급)를 재난미디어센터(국장급)로 대체 신설함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의 재난미디어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면에 계속 ▶]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 4.5 조직개편에 즈음하여

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사 기념식을 겸한 조회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글로써 인사드립니다.

2021년 조직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직무재설계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본사의 국·부·팀 60여 개를 통폐합했습니다. 본사 전체 보직자의 12%를 줄이는 큰 폭의 감축입니다.

또한 부서별 적정 인력을 산출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80여 명(지역 별도)의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인력 감원 프로세스는 현재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는 정년퇴직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에서 인력 축소와는 다른 차원에서 5년간 KBS의 공적책무 강화 및 확대를 위해 6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현재 이사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 경영혁신안에서 직무재설계 추진 계획을 밝힌 후 이번 조직개편안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초안을 내놨는데 변화의 폭이 너무 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사내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경영진은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과 노동조합,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쳐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현실성 있는 안을 도출해냈습니다.

회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변화가 절박하다는 인식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폭넓은 협조에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KBS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과거의 지상파 중심 틀과 관습에서 벗어나 조직과 인력운용,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또한 10년 넘게 지속돼 온 KBS의 구조적인 재정 위기 속에서 인건비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KBS의 내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속적인 자구 노력이 없이는 수신료현실화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더 철저하고 더 큰 아픔을 감내하는 성찰과 혁신”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밖에서 KBS를 보는 시선이 엄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직무재설계 및 조직개편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갈 것입니다. 앞으로 외부 환경 변화를 기민하게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5년은 KBS가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의 공영방송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시기입니다. 저를 포함한 경영진은 구성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KBS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번에 혁신추진부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주었습니다. 직종을 떠나 사심 없이 안을 만들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업무를 완수해준 강성훈 부장과 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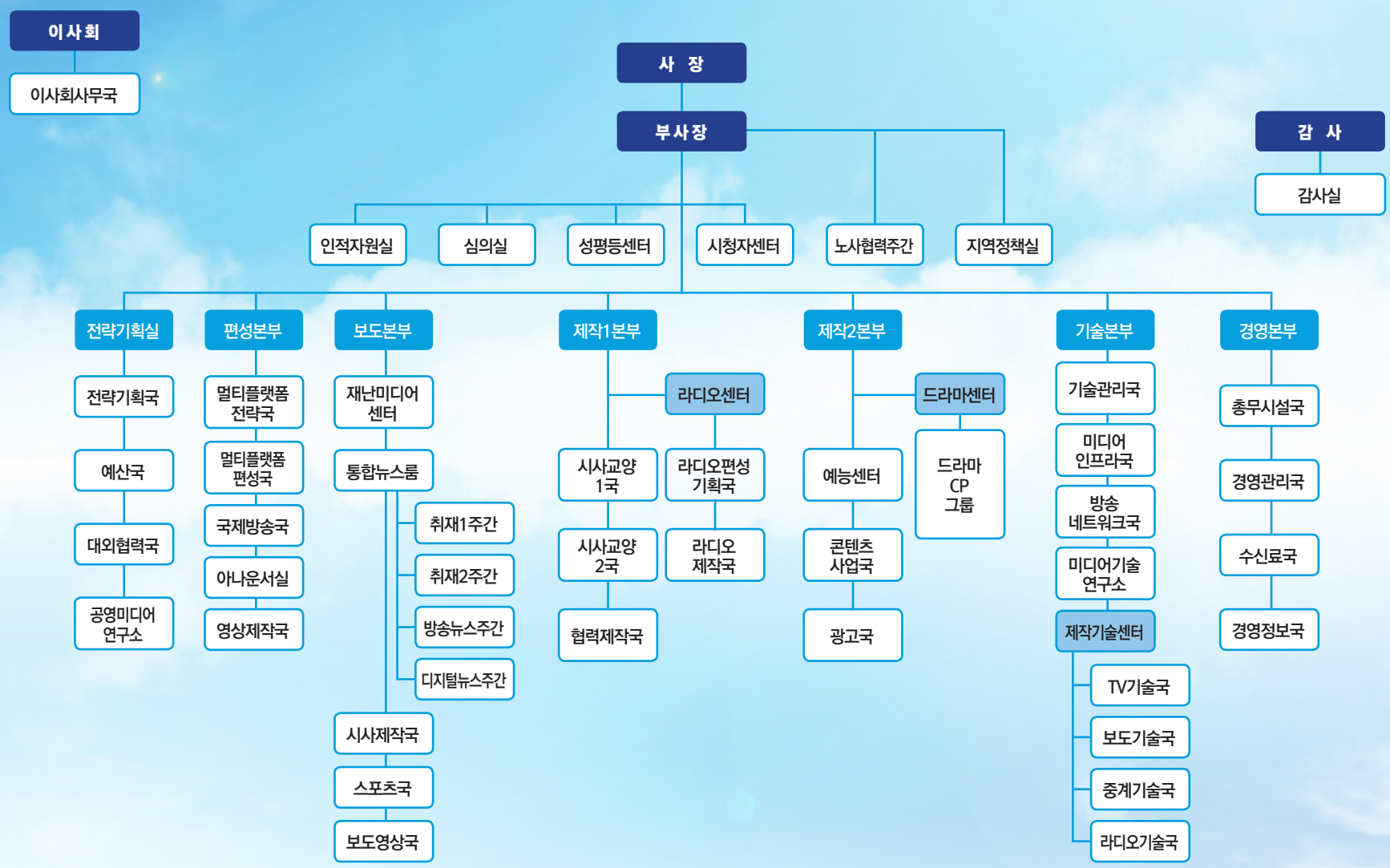
2021년 4월 5일 아침

KBS 한국방송 사장 양승동

[▶ 1면에 이어서]

2021 조직개편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KBS는 기존 6본부 1실 3센터 52국 155부에서 6본부 1실 3센터 46국 137부 체제로 바뀌었다.



2020년 4분기

채널 시청률, 장르별 시청자수 압도적 1위!

지난해 4분기 평균 시청자수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KBS 2TV 주말극 〈오! 삼광빌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닐슨코리아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KBS 드라마와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은 지상파 장르별 시청자수 순위에서 1위부터 4위까지 상위권을 석권했고, KBS 1TV와 2TV는 채널 평균 시청률 및 시청자수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오! 삼광빌라!〉 등 KBS 드라마·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청자수 1~4위 석권!

지난 15일 닐슨코리아가 발간한 〈2020년 4분기 방송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 삼광빌라!〉의 평균 시청자수는 625만 명으로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TV조선의 〈미스트롯 2〉가 584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평균 시청자수가 500만 명을 넘은 프로그램은 없었다.

'지상파 장르별 프로그램 TOP 5' 부문에서는 〈오! 삼광빌라!〉가 시청자수와 시청률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고 〈기막힌 유산〉(488만 명), 〈누가 뭐래도〉(405만 명), 〈비밀의 남자〉(368만 명)가 그 뒤를 이으면서 KBS 드라마들이 1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시사교양 부문에서도 〈인간극장〉(206만 명)을 비롯해 〈6시 내고향〉(179만 명),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172만 명), 〈한국인의 밥상〉(168만 명) 등 간판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1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

예능 부문에서는 〈1박 2일〉(2위)과 〈트롯 전국체전〉(4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KBS가 만든 드라마·시사교양·예능 등의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고른 사랑과 관심을 받았음을 입증했다. 한편 KBS1, 2TV는 채널 평균 시청률과 시청자수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닐슨코리아가 전국의 약 4,170가구 / 12,000명을 대상으로 방통위 TV 시청 환경 기초 조사 결과 및 유선 RDD 전화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실시했다. 전문은 닐슨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라마

순위	프로그램	채널	시청자수 (만 명)
1	주말드라마 〈오! 삼광빌라!〉	KBS2	625
2	일일드라마 〈기막힌 유산〉	KBS1	488
3	일일드라마 〈누가 뭐래도〉	KBS1	405
4	일일드라마 〈비밀의 남자〉	KBS2	368
5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SBS	334

시사교양

순위	프로그램	채널	시청자수 (만 명)
1	〈인간극장〉	KBS1	206
2	〈6시 내고향〉	KBS1	179
3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KBS1	172
4	〈한국인의 밥상〉	KBS1	168
5	〈순간포착〉	SBS	160

주목! 이 프로그램

스타의 과거 집으로 떠나는 특별한 남의 집 여행기

〈컴백홈〉은 스타가 낯선 서울살이를 처음 시작했던 보금자리를 찾아가 그곳에 현재 살고 있는 청춘들을 응원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해피투게더〉 종영 이후 1년 만에 KBS로 돌아온 '국민 MC' 유재석의 복귀작으로 더욱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컴백홈〉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다.

스타의 금의환향 Come Back Home!… 보금자리 대변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컴백홈〉은 스타들의 풋풋하고 열정 넘치는 초심을 돌아보고 추억을 소환한다. 녹록지 않은 서울살이를 견디고 있는 현시대 청춘들을 응원한다는 점에서 MC 유재석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첫 방송에서는 실력파 아이돌 화사 & 휘인이 가수의 꿈을 안고 상경해 첫 보금자리를 꾸렸던 옥탑방 시절을 돌아보고,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집주인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셀프 인테리어 대가인 제이쓴이 옥탑방을 펜트하우스 부럽지 않은 멋진 집으로 변신시켜 감동을 선사했다.

스핀오프 영상 선공개… 유재석+이용진+이영지 3MC 찰떡 케미 기대↑

〈컴백홈〉은 독특한 사전 행보로 방송 전부터 눈길을 끌었다. 첫 방송에 앞서 〈컴백홈〉의 온라인 전용 콘텐츠인 〈컴백홈TV〉를 지난달 19일부터 선공개한 것. 〈컴백홈TV〉는 유재석,이용진,이영지 세 MC들의 비밀스러운 첫 만남, 사전 인터뷰 등을 조합한 온라인 영상물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파격적인 콘셉트의 콘텐츠로 "KBS가 아닌 줄 알았다", "신선한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컴백홈〉은 앞으로 본방에서도 세 명의 MC가 보여주고 있는 찰떡 케미로 이 시대 청춘을 위로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KBS2

여기가 쇼 맛집? 소문 듣고 왔어요!

지난해 12월 첫 방송 이후 20%에 가까운 높은 시청률과 큰 화제 속에 화려하게 막을 내린 KBS 〈트롯 전국체전〉의 결승 진출자 Top8이 다시 한 번 뭉쳤다. 시청자들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가수'들도 함께한다.
새 예능 〈트롯 매직유랑단〉은 유랑단 단원으로 변신한 트로트 가수들이 매주 화제의 스타와 셀럽들이 요청한 특별한 의뢰에 따른 '맞춤형 무대'를 선보이며 또 한 번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트로트 에이스 〈트롯 매직유랑단〉… 본격 '맞춤 쇼'!

〈트롯 전국체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트로트 에이스들이 끼와 매력 넘치는 '트롯 매직유랑단 단원'으로 변신했다. 이들은 매주 연예계 최고 스타나 셀럽들이 유랑단을 찾아와 쇼를 의뢰하면, 단 하나의 특별한 '맞춤형' 무대를 만들어 스타 의뢰인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세 트로트 가수이자 〈트롯 전국체전〉의 코치로 활약한 송가인이 〈트롯 매직유랑단〉의 단장으로 나섰고 방송인 김신영과 문세윤이 부단장을 맡았다. 여기에 Top8 진해성, 재하, 오유진, 신승태, 김용빈, 상호&상민, 최향, 한강 그리고 신미래, 완이화 등 시청자들이 다시 보고 싶어 하는 화제의 단원들도 회차별로 만나볼 수 있다. 지난달 31일 첫 방송에서는 〈트롯 매직유랑단〉의 출범을 알리며 온몸을 내던지는 반장 선거, 어디서 본적 없는 단원들의 개인기가 전격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제작진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트로트 쇼'가 되길 희망한다"며 본방 사수를 당부했다.

▶ 매주 수요일 밤 10시 40분 KBS2

무겁고 진지하기만 한 재난방송은 가라! 재난방송의 재해석 세이프K

"KBS가 이제 이런 것도 하네요~", "반말로 하니까 확실히 편하다. 귀에 쏙쏙!"
재난이 일상이 돼 버린 요즘, 자칫하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재난방송을 구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재해석한 유튜브 채널 〈세이프K〉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200여 명에 불과했던 구독자가 3개월여 만인 현재 1만 2천여 명(2021.4.2. 기준)으로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세이프K〉의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있는 강민수 기자를 만나 인기요인을 들어봤다.

I·N·T·E·R·V·I·E·W 재난미디어센터 **강민수 기자**

Q 〈세이프K〉 팀을 소개해 달라.

A 재난미디어센터가 2019년부터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클난다〉를 〈세이프K〉로 명칭을 변경해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세이프K〉 채널은 김민철 센터장과 'KBS 독수리 오형제'가 제작하고 있다^^. 뉴미디어에 대한 변화 의지가 담긴 큰 방향과 아이디어는 김민철 센터장이 가장 많이 내고, 막내 김용준 기자는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다. 이태근, 이상준, 김성민 엔지니어 세 분은 전국에 있는 방대한 CCTV를 분석하고,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재난감시 카메라를 전국에 설치해놓고 평상시에는 이용을 못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기획하고 가공한 것은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Q 특히 CCTV 롤링캠 영상이 화제던데요?

A 콘텐츠 가운데 가장 조회수가 높은 CCTV 롤링캠 영상은 올해 첫 '해돋이'부터 시도했다. 그다음 '폭설' 때 했고 얼마 전 '봄꽃'을 주제로도 했다. 네 번째로 시도한 게 타임 랩스 형식이었는데 미속카메라를 돌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지리산 뱀사골의 모습'은 얼음이 얼었다가 녹고 봄꽃이 피는 등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어떤 영상은 재난상황이긴 하지만 아름다울 때도 있다. 지난번 폭설로 눈이 쌓인 영상인데 구독자분들이 아름답다고 해주셨다.

Q 새로운 재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A 이제 지상파 방송만 해서는 살아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문은 통합뉴스룸이나 다른 콘텐츠 제작 부서 쪽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하고 있지만, 비중을 봤을 때 재난미디어센터만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적다고 본다. 재난미디어센터에서는 5:5에서 6:4정도로 뉴미디어나 디지털 콘텐츠에 비중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의 영역이 상당히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정제된 재난방송을 했다면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서 하나라도 친절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새로운 공영방송의 임무가 아닌가 한다. 구태의연하게 하면 아무도 안보니까 쉽게 전달하고, 듣고 나면 하나라도 기억나게 하자는 게 저희 팀의 모토다.

Q 앞으로 계획과 바람은?

A 직접 출연하는 콘텐츠와 재난방송 CCTV를 활용한 영상을 주 1회 이상 업로드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와 제가 현장에 나가 체험 배틀을 하는 '깡브라더스'와 공익광고 형태의 재난 행동 동영상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과거의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지상파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무난한 내용을 제공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특이한 것에도 관심이 있는 마니아층을 위한 콘텐츠들이 소비되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KBS도 더 이상 브로드캐스팅이 아닌 특정 국민에게도 소구력을 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져야 전체적인 매체 파워가 강화된다고 생각한다. 〈세이프K〉라는 유튜브 채널이 어떤 하나의 전형이 돼서 다른 보도나 제작부서에서도 발상의 전환으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연재 기획

수신료현실화 Q&A ⑥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 수신료는 TV시청의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제도 운영을 위한 공적 재원

우리나라 방송법은 KBS에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제43조)과 공영방송으로서의 다양한 공적 책임(제44조)을 맡기고, 그 운영재원을 수신료로 충당(제56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제6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법적 명칭은 1989년 개정 방송법에서 명명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입니다. 그 이전에 사용되던 '시청료'라는 용어가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공적 부담금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데다, TV시청의 대가로 유료방송에 지불하는 '시청료'와 확실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납부의무자에 대한 논란은 1999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98헌바70)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우선 수신료는 '공사(KBS)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 '수신료는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부담금'

수신료 납부의무자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공영방송 시청 외에도 KBS가 제공하는 방송문화활동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수신료라는 금전부담을 지울만한 긴밀하고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고, 수신료 수입은 수신료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에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집단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 즉 한국의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특별부담금이며, KBS 시청여부, 시청정도와 관계없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정작용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또 2008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2006헌바70)도 수신료가 KBS 시청의사나 여부 그리고 정도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KBS 아닌 케이블방송만을 시청하면서 케이블방송에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상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이 아니며 실제로 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 공적책무와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 – 영향력, 신뢰도, 선호도 등으로 입증

수신료는 KBS가 수행하는 공영방송사업의 기본 운영재원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사업의 목적은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적책무와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통해 재난방송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 한국어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국가적 문화사업 등 다양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뉴스와 가치 있는 정보, 품격과 재미를 갖춘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KBS의 노력의 결과는 여러 조사와 평가지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KBS는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영향력과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0년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언론사'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꼽혔습니다. 2020년 4분기에는 한국갤럽이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가장 즐겨보는지'를 물은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 채널〉 조사에서도 타 방송사와 큰 차이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26회 KBS 119상 시상식 열려

제26회 KBS 119상 시상식이 지난 1일 KBS 본사 TV공개홀에서 열렸다.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 이영환 소방위는 수난구조기법과 관련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소방위 외에도 21명의 119구조대원과 구급대원들이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구조·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해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춘천총국, 〈올댓뮤직〉 10여 년 만에 시즌1 종영

KBS 춘천총국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 〈올댓뮤직〉이 지난달 26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휴지기를 갖는다. 〈올댓뮤직〉은 2010년 12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력 있는 뮤지션들을 찾아 무대를 제공했다. 2012년부터는 전국 방송으로도 편성돼 지난 10여 년 동안 관객, 뮤지션, 시청자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역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아 왔다.

〈올댓뮤직〉은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녹화를 진행해왔지만, 마무리 공연에서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12명의 일반인 관객을 특별히 초대했다. 또한 무려 15회나 출연한 데이브레이크와 브로콜리너마저, 슬릭&김사월, 루시가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연출을 맡았던 황국찬 PD는 "방송이 10년쯤 되다 보니 교복 입고 왔던 학생이 성인이 되어 공연을 보러오는가 하면, 방청객으로 왔다가 뮤지션으로 출연한 밴드도 있었다"며 "다양한 음악 장르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문화 공연을 선사함으로써 방청객은 물론 시청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6기 장애인 앵커에 최국화 씨 선발

KBS 제6기 장애인 앵커에 최국화(지체장애 1급) 씨가 선발됐다. 최국화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뉴스 12〉의 '생활뉴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스 개편 등에 따라 방송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최 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변화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 전하는 앵커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BS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장애인 앵커를 선발해 차별과 편견 없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44대 신임 기자협회장에 박경호 사우

제44대 기자협회장에 박경호 사우가 취임했다. 2007년 입사한 박경호 신임 기자협회장은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된 협회장 선거에서 83.5%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박 협회장은 "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년 대선 등 KBS 선거 보도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3월까지다.

美 AGFC 최우수상·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등 수상

수상기관 및 작품		
美 AGFC (Accolade Global Film Competition)	최우수상(드라마부문) / 스페셜 멘션상	〈닥터 프리즈너〉
	최우수상(스포츠부문) / 우수상(문화예술부문)	〈씨름의 희열〉
	최우수상(TV프로그램·드라마부문)	〈출사표〉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뉴스9 – 일하다 죽지 않게〉
		〈시사기획 창 – 코로나 19 요양병원 존엄한 노후〉

박치석 퇴직 사우, KBS 아카이브에 '소장 영상' 기증

박치석 퇴직 사우가 지난달 26일 소장 영상 자료 90여 점을 KBS 아카이브에 기증했다. 2002년 퇴직한 박 사우가 기증한 자료는 〈앞서가는 농어촌〉, 〈농어촌 지금은〉, 〈내고향 최고〉, 〈6시 내고향〉 등 1985년부터 1990년대까지 KBS에서 방송한 녹화 테이프 81개(클립 318개), 외장하드 1개, 큐시트 16권이다. 재직 시절 농어촌 프로그램을 제작한 박 사우는 "KBS 아카이브에 자료를 보존해 후세에게 기록으로 남겼으면 한다"고 기증 의사를 밝혔다. KBS는 지난달 31일 박치석 사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KBS 아카이브는 시청자들 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1999년 이전 KBS 방송 프로그램 영상을 기증받는 '시청자 소장 영상 공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양승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828, 2821
편집인 김현석 **취재** 안현기 기현정 나은정 최재영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박수연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